

서점가 평정하는 왕건과 고려사 관련서

왕건과 고려사에 대한 재해석으로 독자들의 관심 불러 일으켜...
영웅적 인물 다룬 역사소설류가 주류 이뤄

강성민 | 자유기고가

드라마 <왕건>이 방영된 후 고려 관련서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서점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왕건의 영웅적 면모를 소설화한 책. 왕건의 일대기와 후삼국 통일과정을 장쾌한 필치로 복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역사적 패배자인 견훤과 궁예를 재해석한 작품도 나왔다. 역사학자들이 쓴 교양서는 문학적 상상력이 왜곡한 역사적 진실을 바로 잡는 데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사 시대구분에서 고려는 중세다. 예로부터 처음과 끝은 꼼꼼하게 짚어보지만 중간은 대충 건너뛰기 일쑤다. 게다가 고려는 일반적으로 외세에 시달리다 망한 '약소국'으로 묘사되곤 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한국사 연구목록에서 고려가 차지하는 영역은 매우 빈약하다. 세부전공을 결정해야 할 역사학도들 사이에서 '고려는 정말 고려의 대상'이라는 우스갯 소리까지 떠돈다. 그런 까닭에 요즘 고려에 쏟아지는 관심과 찬사는 미운 오리새끼가 백조로 둔갑한 것처럼 놀

랍기만 하다. KBS 드라마 <왕건>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이를 전후해 쏟아지는 고려 관련 단행본들이 속속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고 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후삼국의 영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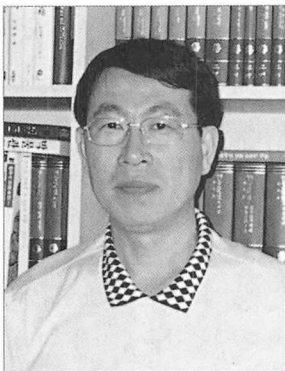
고려의 부활은 왕건의 영웅적 매력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시중에 나온 고려 대중서 18종 중에서 80% 이상이 왕건을 표제로 삼거나 주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들에 묘사된 왕건은 예의바름과 포용력, 인내심과 지략, 신

상필벌의 원칙과 원대한 포부를 갖춘 뛰어난 지도자다.

이런 왕건 찬양의 '침병'으로 나선 것은 역사소설류. 대부분의 책들이 왕건의 일대기와 후삼국 통일과정을 절묘하게 접합시키고 장쾌하게 꾸미는 것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드라마의 저본으로 사용된 <태조 왕건(1·2)>(이환경, 밀알)에서도 왕건과 견훤, 궁예의 삼자대면처럼 흥미를 위해 허구적으로 설정한 부분이 많다. 그나마 최범서의 <고려태조 왕건(전3권)>(동방미

고려사에서 배우는 남북통일의 지혜

《태조 왕건》 펴낸 김갑동 교수



《태조 왕건》의 저자 김갑동 교수(43, 대전대 역사철학부)를 만났다. 이 책에서 그는 사료에 충실한 역사해석으로 태조 왕건의 됴됨이와 후삼국 통일과정을 복원했다. 특히 역사의 현재성을 강조하며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남북통일이라는 현안에 교훈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강단학자로서 대중물을 내놓은 소감이 어떤가?

“일각에서는 아직 학자들의 대중서 집필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역사는 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어느 정도 연구가 축적되면 그것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왜 중요한가?

“고려는 당나라를 등에 업고 무력으로 주변세력을 굴복시킨 신라와는 다르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이었다. 신라든 백제든 스스로 무너져 투항할 때까지 기다렸다. 비록 오월국 같은 외세의 개입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주체는 우리였다. 특히 통일 후 지방세력을 포섭해 실질적인 민족통합을 이끌어내는 등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뛰어난 정책은 민족의 숙원인 통일문제가 대두되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

— 사료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고려 관련 사료의 대부분이 승자의 기록이기에 왕건은 미화하고 궁예와 견훤은 나쁘게만 기술했다고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고려왕조가 500년 동안 지속된 사실만 봐도 고려의 역량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쿠데타에 의한 정권창출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물론 당시의 사관들이 궁예나 견훤에 대해서 좋게 기술한 자료를 몇 가지 빠트렸을 가능성은 있다.”

디어)은 역사 고증이 엄밀한 편이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훈요 10조의 8항 “차령 바깥을 정치에 참여시키지 말라”를 ‘차령 이남’으로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왕건이 지역차별의 원조인 것처럼 알려져 왔다고 말하는 부분이 그런 예다.

《궁예(전2권)》(강병석, 태동출판사)는 패배자의 입장에 선 경우다. 작가는 궁예가 알려진 것처럼 포악하지만은 않으며, 병졸들과 함께 침식을 같이 하는 등 민중 사관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후삼국기(전5권)》(박영규, 들녘)도 궁이 왕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후삼국 45년을 그리고 있다. 성곽전투와 군사들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후삼국시대를 온갖 영웅들이 사활을 건 《삼국지》의 광활한 세계와 필적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역사 전공자들이 쓴 대중서도 나와

지난 5월 잇달아 출간된 《태조 왕건》(김갑동, 일빛)과 《궁예 진흥 왕건과 열정의 시대》(이도학, 김영사)는 고려사 전공자가 쓴 대중서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두 책은 우선 철저한 사료분석을 기반으로 각 인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드라마나 소설을 통해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펼쳤던 독자들을 역사의 진실로 끌어내린다.

김교수의 책은 왕건의 일대기를 소설형식으로 쉽게 풀어 썼다. 왕건의 족보, 신라말의 혼란한 시대상, 궁예와 견훤을 굴복시킨 경위, 통일의 기초가 된 정책들을 다루고 후삼국 통일의 역사적 의의를 현재의 남북통일 문제와 연결해 성찰했다.

이도학 교수는 후삼국 통일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에 정면으로 맞선다.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세 영웅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날 줄로 삼아 후삼국사를 기술했다. 사료의 행간읽기와 직접 발로 뛰는 현장답사가 이 책의 특징. 저자는 견훤을 진흥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삼국사기》가 ‘신라계승론자’의 역사기록이라고 평가한다. 왕건에 대해서도 ‘결국 자비롭고 폭력을 싫어하는 선한 인물이 아니라 강장(強壯)한 적에게 승리를 거두기 위해 살해나 파괴와 같은 기술에 숙달된 지방의 한 장군’에 불과했다고 말한다.

《한국사 101장면》의 저자 정성희씨도 《인물로 보는 고려사》(청아출판사)를 펴냈다. 왕건부터 이성계까지 주요 국왕과 관료들을 평(評)하면서 고려 500년의 흥망사를 훑아보는 독특한 시도다. 사진자료가 많아 읽기에 편리하다는 점이 이 책의 장점이다.

일반인을 위한 고려통사 아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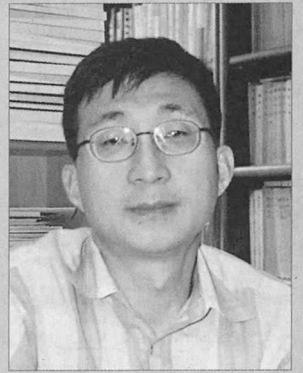
인물사나 전쟁사에서 벗어나 고려문화 전반을 다루는 책들도 있다. 국민대 역사학과 박종기 교수의 《5백년 고려사》(푸른역사)를 보면 고려역사와 전통의 큰 줄기를 가늠할 수 있다. 저자는 고려왕조의 특징을 다양성과 통일성, 개방성과 역동성으로 전제한다. 지방세력의 기반을 인정하는 본국제를 민족통합 모델로 주목하고, 고려의 지방분화가 문화의 향유계층을 귀족에서 해방시켜 영역을 확대시켰다고 설명한다. 또 고려사회는 유교 외에도 불교·도교·풍수지리설

이제는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

숙명여대 한국사학과 박종진 교수

박종진 교수(45)는 고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기면서도, 지나친 상업성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 효과를 우려한다.

“현재 시중에 나온 책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고려 초기에 편중돼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고려 전반의 정치사·사회사인데 이것은 찾아보기 어렵죠. 몇몇 개인들의 역사를 영웅시하거나 신격화함으로써 영웅 중심적, 운명론적 사고를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대중서 쓰는 사람은 많은데, 옥석을 가려주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한다.

“대중서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지금, 대중서만 취급하는 서평집단이 형성돼 문제가 있으면서도 잘 팔리는 책은 시장에서 쫓아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역사 대중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왔다고 지적한다. 또 대중화된 역사지식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도 의문부호를 붙인다. 가장 큰 문제는 생산과 공급이 따로 논다는 점이다.

“400여종이나 되는 대중역사물이 있지만 대부분은 비전문가들이 쓴 책이죠. 해당 전공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자의적인 편집이 이뤄지기 때문에 원래의 역사적 문맥을 심하게 손상시킵니다. 소설이나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이 대표적인 경우죠.”

역사의 대중화가 효과를 거두려면 전문가들의 참여가 다방면에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자들도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역사지식의 유통구조도 개편돼야 한다고 박교수는 주장한다.

“생산과 공급이 같이 가는 거죠. 먼저 전문가들이 독자의 기호에 맞게 글을 써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굳이 대중서란 명목으로 책을 내지 않아도 잘 팔리거든요. 무엇보다 쉽게 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독자와의 접촉루트를 많이 개발해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이 필요합니다.”

박교수는 이런 원칙하에 직접적인 저술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물의 작업에도 전문가들의 참여폭이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 다양한 이념에 따라 움직인 사회며, 이런 정치이념이 능력에 따라 관료를 등용하는 개방적인 정치문화를 낳았다고 본다.

재야학자 박기현씨가 펴낸 《손에 잡히는 고려이야기》(늘푸른소나무)는 일종의 생활문화사다.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개성 인삼의 유래, 고려 사람들이 마셨던 술의 종류 등 고려인들의 일상적 삶과 《팔만대장경》 같은 문화유산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 《산전수전 고려사》(박선식, 푸른나무), 《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박영규, 들녘) 등의 책이 나와 있지만 쉽게 쓴 고려 통사는 없다. KBS가 〈왕건〉 후속으로 고려왕조 500년을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라 하니, 고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점점 높아 갈 것이다. 고려 관련 대중서들이 연속극을 이해하는 ‘자습서’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출판계의 갈 길이 바쁘다. ●